

— Press Release —

Under embargo until  
August 20, 2026



*Fifty Fathoms*

# 블랑팡, 바티스카프의 빈티지 감성을 되살린 바티스카프 70주년 리미티드 에디션 공개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의 황금기에서 탄생한 바티스카프는 우아한 디자인과 일상에서의 뛰어난 착용감을 조화롭게 갖춘, 스킨 다이버 워치의 전형적인 특징을 구현한 컬렉션이다. 1956년, 세계 최초의 진정한 다이버 워치인 피프티 패덤즈(1953)의 민간용 모델로 출시된 바티스카프는 이미 1953년 당시 블랑팡 CEO이자 열정적인 다이버였던 장자크 피슈테르(Jean-Jacques Fiechter)가 등록한 이름이었다. 이는 전문 다이버뿐만 아니라 다이빙을 즐기는 애호가들도 착용할 수 있는 다이버 워치를 만들고자 했던 그의 선구적인 비전을 반영한다. 탄생 70주년을 맞은 올해, 블랑팡은 1968년 출시된 상징적인 모델을 현대적으로 재현한 리미티드 에디션을 선보이며 이러한 헤리티지를 기념한다. 과거의 디자인을 충실히 계승하면서도 현대 워치메이킹의 기술력을 결합한 이번 300피스 리미티드 에디션은 다이버 워치의 진화를 이끈 중요한 역사적 순간에 경의를 표하는 타임피스다.



© Tim Vaux Photography



## — 주요 특징 —

- 바티스카프 탄생 70주년을 기념하는 300피스 리미티드 에디션
- 1968년 출시된 상징적인 바티스카프 모델에서 영감을 받은 빈티지 디자인. 37.40mm 케이스, 선버스트 메테오 그레이 다이얼, 빈티지 컬러의 슈퍼 루미노바®를 적용한 바통 핸즈와 인덱스, 박스형 사파이어 크리스탈 하단까지 이어지는 스틸 베젤, 그리고 20세기 중반 블랑팡 로고를 적용해 오리지널 디자인을 충실히 재현했다.
- 바티스카프는 피프티 패덤즈의 민간용 모델로 탄생했으며, 다이버 워치의 핵심적인 특징은 그대로 계승하면서도 보다 일상적인 착용감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 사파이어 크리스탈 케이스백을 통해 오프 오를로제리(Haute Horlogerie) 수준의 정교한 무브먼트 마감과 오리지널 피프티 패덤즈에서 영감을 받은 18K 골드 로터를 감상할 수 있다.
- 블랑팡 매뉴팩처 칼리버 1150을 탑재했으며, 100시간 파워리저브를 제공한다.
- 민간용 다이버 워치 특유의 빈티지 감성을 강조하는 초콜릿 브라운 컬러의 카프레더 스트랩을 매치했다.

“피프티 패덤즈는 하나의 모델이 아니라 하나의 패밀리입니다. 그리고 그 패밀리를 대표하는 중요한 모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바티스카프입니다.”

마크 A. 하이에크(Marc A. Hayek)  
블랑팡 회장 겸 CEO

#### 스킨 다이버 스타일: 수중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1950~1960년대,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이 대중화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다이버 워치가 등장했다. 바로 스킨 다이버(Skin Diver)다. 스킨 다이버 워치는 단순한 전문 장비를 넘어, 여가와 즐거움,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던 다이빙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며 수중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을 상징했다. 다이빙이 전문적인 활동을 넘어 개인의 모험과 탐험을 즐기는 취미로 자리 잡기 시작한 시대의 정신을 담아낸 것이다. 보다 컴팩트한 케이스 비율과 간결한 디자인, 절제된 미학을 특징으로 하는 스킨 다이버 워치는 다이버 워치가 갖춰야 할 핵심 기능은 유지하면서도 일상에서도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구현했다.

이러한 철학에서 탄생한 모델이 바로 바티스카프(Bathyscaphe)다. 비록 ‘바티스카프’라는 이름은 1953년에 이미 등록되어 있었지만, 블랑팡의 CEO이자 피프티 패덤즈의 개발자인 장자크 피슈테르(Jean-Jacques Fiechter)는 1956년 바티스카프를 공식적으로 선보였다. 바티스카프는 블랑팡이 피프티 패덤즈를 통해 축적한 선구적인 다이빙 워치 기술력을 보다 일상적인 착용을 위한 민간용 모델로 구현한 타임피스로, 전문 다이버뿐 아니라 다이빙을 즐기는 애호가들도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 바티스카프: 다이버 워치의 헤리티지를 잇다

‘바티스카프(Bathyscaphe)’라는 이름은 1940년대 스위스 과학자 오귀스트 피카르(Auguste Piccard)가 고안한 심해 탐사정에서 유래했다. 인류가 바다의 가장 깊은 곳까지 도달하기 위해 개발된 바티스카프는 심해 탐사의 역사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으며, 이는 다이빙과 탐험에 깊은 열정을 지녔던 장자크 피슈테르(Jean-Jacques Fiechter)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었다. 바다를 향한 이러한 공통된 탐구 정신은 블랑팡 다이버 워치 역사에서 ‘바티스카프’라는 이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1953년에 출시된 피프티 패덤즈(Fifty Fathoms)가 군 특수부대와 전문 다이버, 수중 전문가를 위한 프로페셔널 다이빙 도구로 개발되었다면, 바티스카프(Bathyscaphe)는 같은 유산을 계승하면서도 다이버 워치의 핵심 요소는 그대로 유지한 보다 일상적인 해석으로 탄생했다. 두 모델의 가장 큰 차이는 비율에서 드러났다. 직경 41mm가 넘는 오리지널 피프티 패덤즈는 견고한 프로페셔널 장비로 설계된 반면, 35mm의 보다 컴팩트한 케이스를 갖춘 바티스카프는 슬림하고 절제된 실루엣을 통해 보다 일상적인 스타일을 제안하면서도, 다이버 워치 본연의 성능은 그대로 이어갔다.

70여 년에 걸쳐 바티스카프는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해 왔지만, 언제나 처음 탄생했을 때의 정체성을 충실히 이어왔다.



Fifty Fathoms Bathyscaphe, 2026



Fifty Fathoms Bathyscaphe, 1968

#### 1968년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다

출시 70주년을 맞아 블랑팡은 바티스카프 역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모델 가운데 하나인 1968년 출시된 바티스카프에 주목했다. 이 타임피스는 균형 잡힌 비율과 뛰어난 기능성, 그리고 절제된 우아함이라는 바티스카프 컬렉션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델로 선정되었다.



© Tim Vaux Photography

블랑팡은 당시 모델의 디자인을 최대한 충실히 계승하는 동시에, 현대 워치메이킹의 기준에 맞게 재해석했다. 새로운 에디션은 오리지널과 동일한 37.40mm 직경과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를 유지하면서도, 이상적인 비율과 뛰어난 착용감을 구현하기 위해 무브먼트에 맞춰 케이스를 새롭게 설계했다. 슬림한 케이스 밴드가 만들어내는 뛰어난 직경 대비 두께의 비율은 손목 위에서 한층 균형 잡힌 실루엣을 완성했으며, 폴리시드 마감과 부드럽게 이어지는 곡선, 정교하게 다듬어진 러그는 세련된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베젤 역시 전통과 혁신을 잇는 디자인 철학을 이어갔다. 역사적인 모델과 마찬가지로 스틸 소재를 사용했으며, 박스형 크리스탈 하단을 감싸는 링 형태까지 그대로 재현했다. 이 독창적인 구조는 이번 타임피스를 위해 특별히 되살린 디테일이다. 또한 오늘날의 바티스카프보다 폭이 더 좁았던 당시 베젤 인서트의 비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존의 블랙 헤잘라이트(Hesalite) 대신 세라믹 소재와 래커 처리된 숫자를 적용해 내구성과 가독성을 한층 높였다. 120개의 톱니를 갖춘 볼 베어링 시스템은 베젤을 더욱 정교하고 부드럽게 조작할 수 있도록 했다.

20세기 중반에 사용되던 블랑팡 로고부터 박스형 크리스탈, 바톤 핸즈와 인덱스까지 모든 요소는 오리지널 모델의 디자인 코드를 충실히 반영했다. 빈티지 컬러의 슈퍼 루미노바(Super-LumiNova®)는 과거 야광 소재가 지녔던 따뜻한 색감을 재현했으며, 손바느질로 완성한 초콜릿 브라운 컬러의 송아지 가죽 스트랩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연스러운 파티나를 더해 헤리티지 감성을 더욱 깊이 있게 완성했다.

그 결과, 1968년 모델의 개성을 고스란히 담아내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탄생한 바티스카프가 완성되었다.

### 빈티지 감성, 현대적인 성능

빈티지에서 영감을 받은 외관 아래에는 블랑팡 현대 워치메이킹의 기술력이 담겨 있다. 이번 70주년 기념 에디션에는 매뉴팩처 칼리버 1150이 탑재되어 뛰어난 정밀성과 안정성은 물론, 100시간의 파워리저브를 제공한다. 또한 실리콘 헤어스프링을 적용해 뛰어난 항자성 성능을 구현했으며, 무브먼트의 안정적인 작동과 오랜 시간 변함 없는 성능을 뒷받침한다.

사파이어 크리스탈 케이스백을 통해 감상할 수 있는 무브먼트는 오프 오를로제리(Haute Horlogerie)의 정교한 마감 기술을 보여준다. 오리지널 피프티 패덤즈의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은 18K 골드 오픈워크 오실레이팅 웨이트는 무브먼트의 아름다운 기계적 구조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케이스백이 막혀 있었던 1968년 모델과 달리, 이번 에디션은 사파이어 크리스탈 케이스백을 통해 무브먼트를 직접 감상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는 바티스카프가 지닌 일상적인 착용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착용자가 블랑팡의 워치메이킹 기술을 더욱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택이다. 블랑팡은 이를 통해 과거와의 연결성을 이어가는 것은 물론, 타임피스에 담긴 정교한 워치메이킹 기술까지 직접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피프티 패덤즈 컬렉션의 기준에 따라 30bar(약 300m) 방수 성능을 갖춘 바티스카프는 전 세계 300피스 한정으로 제작

되며, 각각 고유의 시리얼 넘버가 부여된다. 모든 타임피스는 Peli™ 케이스와 함께 제공되며, 이번 70주년 기념 에디션은 현대적인 성능과 역사적인 모델의 변함없는 개성을 조화롭게 담아내며 바티스카프가 이어온 70년의 유산을 기념한다.



© Tim Vaux Photography



## 기술 사양

### 피프티 패덤즈 바티스카프

Ref. 5903 1110 63A

**무브먼트:** 블랑팡 매뉴팩처 칼리버 1150

기능: 시, 분, 초, 날짜

와인딩: 오토매틱

파워리저브 : 약 100시간(약 4일)

크기: 26.20 × 3.25mm

진동수: 3Hz(시간당 21,600회 진동)

헤어스프링: 실리콘

주얼 수: 28개

부품 수: 210개

**케이스:** 스테인리스 스틸

크리스탈 및 케이스백: 사파이어 크리스탈

방수 성능: 30bar(약 300m)

케이스 직경: 37.40mm

케이스 두께: 12.30mm

러그 투 러그: 46.50mm

러그 폭: 18mm

**다이얼:** 선버스트 메테오 그레이

핸즈 및 인덱스: 빈티지 컬러 슈퍼 루미노바®를 적용한 18K 화이트 골드 바톤 핸즈 및 인덱스

**스트랩:** 초콜릿 컬러 송아지 가죽 스트랩

버클: 핀 버클

**한정 수량:** 전 세계 300피스 한정

**가격:** 22,550,000 KRW

**보증 기간:** 5년

### INTERNATIONAL PR

Marie Ansel, [marie.ansel@blancpain.com](mailto:marie.ansel@blancpain.com)

Jordy Bellido, [Jordy.bellido@blancpain.com](mailto:Jordy.bellido@blancpain.com)